

“관광객 감소 원인 내부에서 찾아야”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 정례회 5분발언서

“경쟁력 제고 위해 선제적·전방위적 대책 필요”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무주관광산업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주관광사업 경쟁력 강화 대책 촉구’ 5분발언을 통해 무주군 관광산업 현황을 제시하고 각종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지금 구천동 관광특구 내 상가 및 숙박업자는 시설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계절성이 강한 시설업자로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구천동 입장객 수는 2019년 77만여 명에서 2021년 약 64만명으로 줄었고 적상도 32만명으로 2만 명 감소했다. 무주더유산조트는 2019년 147만여 명에서 2021년 90만 명으로 급감했다”며 “관광시설 입장객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의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감소는 김영병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반시설과 고객서비스 등 내부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줄었고 더유산조트 내 설치하려던 무주워터파크 사업도 10년 동안 진척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구천동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무주군의 대응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무주군과 부영그룹은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 신축, 노후시설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약속했으나 아직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유산과 구천동의 침체된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오광석 부의장은 이미 제시된 사업들을 밀도 있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주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이 간절하다며 횡인홍 군수에게 제시한 풍요로운 문화관광을 제대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부주=전문선 기자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전국지전거대회가 무주에서 열린 가운데 철가선수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자전가 매니아들 무주서 집결

문체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자전거대회 성료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전국지전거대회가 반딧불이가 살았던 청정무주에서 전국의 자전거 미니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성황리에 마쳤다.

대회 코스는 국민체육센터~당산삼거리~설천면 소천교~무풍 원평삼거리~무주리조트삼거리~리제봉문~무주교차로~국민체육센터로 돌아오는 79.4km 코스다.

비경행 코스 원주 방식 대회 진행으로 자전거타기 봄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또한 시·도 연맹 등 호우이나 자전거를 사랑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대상폭도 넓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서

종열 팀장은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무주의 이름다운 자연과 관광지원을 흥보함은 물론 동호회원들의 연중 무주방문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천혜의 비경, 산 좋고 물 맑은 수려한 자연 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자전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전국 최고의 자전거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이번 대회를 유치했다.

(사)대한자전거연맹과 전북자전거연맹이 주최 주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군체육회가 후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민선8기 첫 추경 확정

492억원 증액한 4891억원…군, 민생안정 등에 중점

장수군(군수 최훈식)에서는 4,891억 원(일반회계 4,580억원, 특별회계 311억원) 규모의 2022년 제2회 추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회 추경 4,399억원 보다 11.19% 492억원 증가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기자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 사업비, 주민안전 및 군 발전을 위한 역점 추진 사업에 투입했다.

민생경제 대책으로 △농기계용 면세 유기격인정지원 4억원 △비료 기격인정지원사업 11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0억원 △지역시장상품권 발행지원 15억원 등을 반영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주민안전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유통을 위한 스마트팜 건립 용역 3억 원 △농산물 가격인정화 사업을 위한

APC 운영 활성화 장려금 2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17억원 △시치소하천 정비공사 11억원 △계단면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각종 사업비 전액을 통해 마련했다.

장수군은 현재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될 수 있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외부의 불안전한 환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안 편성에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며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장수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



지난달 30일 열린 장수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위촉식.

장수군 ‘군민과 함께 공약 이행’

군민배심원단 위촉

장수군이 지난달 30일 민선8기 70개 공약사업의 이행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공약이행평가 군민 배심원단’ 위촉식과 1차 심의회를 가졌다

군은 7월 말부터 2주간 군민배심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배심원 20명, 자문위원 6명을 선정했다.

군민배심원단은 △행정·민원·소통 △농림·축산·소득 △의료·복지 △문화·관광 △교육·청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배심원의 임기는 4년이다.

배심원단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

행률 점검과 행정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실천 계획의 수정·보완·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약의 사업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해 실질적 내용 달성을 여부를 중점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오늘 위촉식 및 1차 심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공약’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약 실천을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평가받고 공약 이행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군민과의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관광객 맞이 ‘새단장’

진안군은 홍삼축제와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마이산 도립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점검과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등 순남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공원 내의 탑방로, 공중화장실, 주차장, 전망대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했다.

등산로 계단, 로프, 난간 등 인조시설물을 점검하고 노선별 위험구역에 대해 차단 안내판 설치, 위험요소 제거 및 쓰레기 수거로 등산 애호가들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화장실 및 테크 파크라, 의자 등 편의시설물에 대해서도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마이산관광단지와 탑방로 주변 예초작업 및 회단정비를 실시했으며 마이산 북부 연인의 길에 설치된 조형물과 편의시설물에 수년간 쌓인 묵은 때와 먼지를 청소했다.

전총성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든 관광자가 하직했지만 앞으로 마이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진안 마이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안전한 도립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진안홍삼축제 페이백 진행

진안군은 오는 8일부터 10일 까지 진안홍삼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내 홍삼·수삼 판매관 이용금액의 일부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페이백 행사 기간에 소비자가 홍삼·수삼 판매관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행사장 내 배부처에 제출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용금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만원,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은 2만원,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3만원, 20만원 이상은 4만원을 받는다.

페이백행사는 1인당 1회, 최대 4만원까지 지급하며 준비된 수령이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진안=우태민기자

홍삼축제 ‘망치킹’ 운영

진안군은 진안홍삼축제 기간인 8일부터 10일까지 북부마이산 주무대 광장에서 협행개선 및 재미요소를 가미한 슈퍼히어로 체험게임 존(Zone)인 홍삼망치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삼망치킹 게임은 1회당 15분 정도 소요되는 게임으로 행사기간 중 6회(1일차 3회, 2일차 2회, 3일차 1회) 운영한다. 1회당 성인 10명, 어린이 10명으로 최대 20명까지 참가하여 성인은 홍삼을 먹고 헤어로 게임기를 써서 힘자령을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홍삼액을 먹고 두더지게임을 해서 최고점을 기록한 체험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게임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홍삼축제 퍼즐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체험자가 홍삼제품의 효능도 직접 느끼고 축제도 즐기면서 건강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겠다.”며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8일 진안홍삼축제 현장서 ‘진안고원몰’ 홍보

자체 사이트 쇼핑몰 기념 이벤트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오는 10월 8일 오픈 1주년 및 ‘진안고원몰’ 자체 사이트 쇼핑몰 오픈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진안홍삼축제 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안홍삼축제 현장에 마련된 홍보부스와 진안고원몰 자체 사이트(jinangowonmall.com)를 통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진안홍삼축제를 맞아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진안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새로 오픈하는 자체 사이트의 신규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쿠폰 및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진안고원몰의 신규회원에 가입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추억의 캠페인’이벤트 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각 날짜별로 뽑기 이벤트를 통해 각각 △1등은 홍삼스파이용권(4장), △2등은 명인명품 관 체험권(4장), △3등은 8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1세트, △4등은 4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또는 홍삼제품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장류 선물세트, △현미누룽지 세트, △홍삼쪽기 1박스, △ABC주스, △체험카페 등 진안고원몰에서 판매 중인 총 13종의 제품을 상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하위 상품에 당첨되더라도 진안홍삼제품 소포장 패키지를 담은 진안고원몰 에코백을 증정할 예정으로 ‘꽝’ 없는 이벤트로 진행된다.

또한 홍보부스 내 마련된 ‘진안고원몰’은 현재까지 81개 농가 및 업체, 219개 상품 입점으로 꾸준한 매출 상승과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8일에는 군 자체 사이트인 자사(social)를 형태로 ‘진안고원몰’을 오픈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민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